기후위기 본격 대응…국제개발구호 나서

2021 사회 · 복지 · NGO 결산

담화문 등 불교적 의지 표명
불교국가에 생필품 지원 시작
협약 릴레이로 남북교류 기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도 활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로터스월드는 올 중순부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남방불교 사찰들을 지원해 왔다.

올해 불교계는 코로나19로 대사회 활동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축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 촉구해 온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은 결국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기후위기 극복에 관심 고조

올해 조계종은 신년기자회견문과 부처님오신날 봉축사, 세계환경의날 담화문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불교적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심각성이 대두됐지만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계 활동은 미진했던 상황에서, 이 같은 발표는 기후위기 극복활동에 불교계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와 환경위원회는 10월28일 종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기후변화를 주제로 '기후변화와 불교실천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12월에는 총무원장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과 일반직 종무원을 대상으로 불교적 과제 실천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은 2022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사업을 앞두고 모든 구성원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불교가 가진 환경친화적인 가르침을 일반사회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6월 이사회를 통해 5개년 계획을 담은 기후환경위기 사업을 확정했다. 2022년부터 '지구는 하나' 제하의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분야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찰 환경 개선 운동도 적극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올 한 해에도 빛을 발했다. 그러나 기록적인 더위와 추위에도 제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와 오체투지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간 연장이라는 결과가 나와 안타까움을 전했다. 사노위는 2022년에도 릴레이 기도법회 및 오체투지 법회를 이어가며 이웃종교, 정의당, 시민사회와 긴밀한 연대를 토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남북불교교류 재개 기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꽁꽁 언 남북 교류 속에서도 훈풍을 기다리며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추진한 평화통일도량 협약에는 전국 80개 사찰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힘을 모으겠다고 동참한 상태다. 협약을 맺은 사찰들은 민추본의 한반도 평화통일 사업을 후원하고 불자들에게 그 취지를 알리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추본은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가 108개 도량과 후원사찰 협약을 맺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평화통일발원문 공모전을 개최,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발원문들을 토대로 조계종을 대표하는 평화통일발원문을 제작, 사찰과 단체 등에서 독송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코로나 이후 불교국가 지원

그간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국제개발구호NGO 활동에도 변화가 일었다. 로터스월드는 올 중순부터 코로나19로 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사찰 긴급지원캠페인을 펼쳤다. 1~6차 캠페인을 통해 지원 받은 사찰은 3개 국가 총 49곳, 수혜인원은 1만 3000여 명에 달한다. 로터스월드는 2022년에도 쌀과 소금, 비누 등 생활필수품을 꾸준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프라미스의 경우 코로나19와 더불어 쿠데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 긴급식량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본격적인 모금에 나섰으며 현재 미얀마 7개 마을에 쌀 지원을 시작한 상태다.

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불교계 복지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기간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지역사회 약자를 위한 도시락 배부와 비대면 복지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시도들을 이어갔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 사업을 적절히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대적 변화 적극 반영 지역사회 더불어 상생

[기획] 3. 교구본사 복지법인 모범사례

조계종 교구본사 법인들이 지역에 안착하면서 지역 기반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운영효율 강화는 물론 지역별 사회복지 균형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열악한 지역 상황에서도 남다른 운영방식으로 불교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교구본사 복지법인 모범사례로 입소문이 난 재단들의 사례를 담았다. 〈편집자주〉

'함께하는 아름다움' 직지사복지재단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가 운영하고 있는 직지사복지재단은 여러 측면에서 모범사례로 꼽힌다.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법인의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재정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이 단연 눈에 띈다.

직지사복지재단은 현재 직영 1개소와 수탁 9개소 총 10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상근과 파견을 포함해 직원 수가 260여 명에 달할 정도다.

직지사복지재단이 탄탄한 행정력을 발휘하며 지역사회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상근 전담 인력에 있다. 재단은 법인사무국의 행정을 총괄하고 산하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임 상근 직원 2명을 채용했다. 전문가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나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높아진 법인의 공신력과 사업수행 능력은 지역사회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는 기반이 됐다. 앞으로 경북서북부 지역 신규 사회복지시설 유치 및 업무를 지원하고 불교사회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직지사는 복지재단뿐 아니라 승려복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교구 최초로 승려복지 회칙을 제정하고 복지 대상을 교구 재적 스님과 예비승까지 확대하는 한편 실비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승려복지제도를 선도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월정사복지재단

2007년 설립된 월정사복지재단(이사장정념)은 무료급식, 자비금혼식, 역량강화, 지역복지, 시설위탁 등의 사업을 펼치며 지역사회에서 복지 범위를 조금씩 더 확장해가고 있다.

현재 월정사노인요양원을 비롯해 총 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산하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수가 파견을 포함해 200여 명에 달한다.

법인에는 산하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법인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 2명의 전담 인력과 1명의 파견직원을 뒀다. 상시업무에도 이사장과 상임이사(유엄 스님)가 꼼꼼히 행정을 살펴 직접 결제하는 게 특징이다.

월정사복지재단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한다. 요양원의 경우 시스템을 전산화해 화상으로 면회를 지원하는 등 언제든 가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사회와 상생' 신흥사복지재단

신흥사복지재단(이사장 우송)이 교구본사 복지법인의 모범사례를 꼽히는 이유는 지역사회를 향한 '꾸준한' 자비나눔에 있다. 신흥사와 신흥사복지재단은 2007년부터 '저소득 틈새가정 명절

2008년 설립 직지사복지재단
경북서북부 지역 10개소 운영
2007년 설립 월정사복지재단
이용자 니즈충족 시도에 호응
1996년 설립 신흥사복지재단
13년째 꾸준한 자비나눔 펼쳐

나누기 행사'와 '속초지역 내 초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을 진행하며 나눔이 곧 부처님 가르침인 자비 실천임을 몸소 보였다. 각종 자비나눔은 2009년 신흥사 현 회주인 우송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면서 더욱 구체화됐다. '나눔으로 함께하는 향기로운 불사'를 시작으로 부처님오신날, 추석, 송년 자비나눔 등 매년 3회에 걸쳐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자비나눔은 연차로 13년, 횟수로는 40회에 이르고 있으며 나눔을 통해 지원받은 이들이 현재 1만7400여 명, 금액으로 따지면 29억 원에 이른다. 또 성준장학재단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신흥사 부주지 무문 스님은 "신흥사에 기반을 둔 신흥사복지재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 내 사찰 위상 역시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

아름다운동행, 난방지원 캠페인

홈페이지 · ARS 통해 후원 가능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스님)이 소외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염원하며 '기브유 캠페인'을 전개한다.

동절기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위한 '기브유(Give油) 캠페인'은 겨울철 난방이 취약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과 달동네 · 쪽방촌 거주민 등 변변치 않은 난방장치 없이 추운 겨울을 버텨야 하는 에너지빈곤층에게 연탄과 난방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108가구에 연탄과 난방유상품권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동참을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는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dreaminus.org)에서 직접 후원할 수 있다. 02)737-9595

임은호 기자

1년 전 불자 중 12%, '무종교인'으로

한국리서치, 종교지표 조사 결과 발표

불자 34%만이 "종교가 중요"
불교 · 천주교〉개신교 '호감'
무종교인은 불교 호감 '최고'

1년 전 "불교를 믿는다"고 응답한 불자 중 12%가 '무종교인'으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종교별 호감도는 불교와 천주교가 비슷했고, 무종교인의 종교 호감도는 불교가 가장 높았다.

한국리서치는 12월 8, 15일 '종교지표'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과 '주요 종교호감도와 종교의 효능감'을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2018년 이후 주요 종교별 인구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50대 이상에서 '믿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증가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50대에서 '믿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2018년 40%에서 올해 46%로 높아졌고, 3대 종교를 믿고 있다는 응답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천주교와 불교 신자의 비율은 각각 3%씩 감소했고, 개신교 신자의 비율도 2% 감소했다. 장년 ·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불교에게 50대 이상 연령층의 이탈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또한 1년간의 종교 변화를 묻는 질문에 1년 전 불자였던 사람 중 12%가 "종교 없음"이라고 답했다. 개신교도 같은 질문에 12%가 무종교인으로 전향했음을 밝혔고, 천주교는 8%가 전향했다.

자신의 삶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불교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개신교 신자는 78%가 "종교활동이 본인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50%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불교 신자는 34%만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8% 상승한 수치다.

종교별 호감도에서는 불교(50.4점)와 천주교(50.7점)가 비슷했으며 개신교는 31.6점으로 3대 종교 중 가장 낮았다. 본인이 믿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무종교인들은 불교를 가장 호감가는 종교(49.7점)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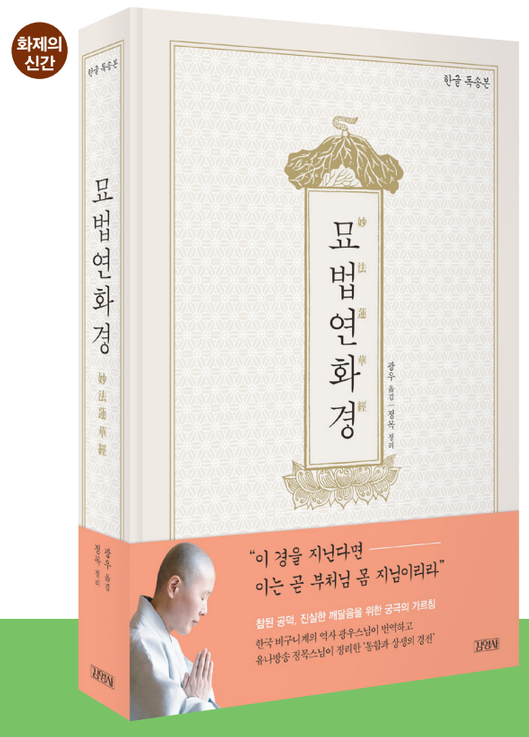
한국리서치는 "불교는 불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호감을 얻고 있다"면서 "반면 개신교는 개신교 신자들만 높은 호감도를 갖고 있을 뿐, 다른 종교 신자와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김영사

"이 경을 지닌다면 이는 곧 부처님 몸 지님이리라"

광우스님이 번역하고 정목스님이 정리한 독송용 법화경



묘법연화경 한글 독송본

광우 옮김 · 정목 정리
544쪽 | 26,000원

《금강경》《화엄경》과 함께 주요 대승경전으로 꼽히는 '경 중의 경'. 초행자의 막막한 마음, 수행자의 오랜 고민에 응답하는 궁극의 가르침을 만난다. 다양한 불교 이론을 아우른 '통합'의 경전이자 대승정신을 구현한 '상생'의 경전. 참된 공덕, 진실한 깨달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하는 지침서. 절묘한 비유와 풍부한 예화로 가득한 부처님 마지막 설법이 펼쳐진다.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인연과 공덕은 부처 세계에 입성할 초대권과 같습니다." _정목스님

광우 한국 비구니계 선구자이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최초의 비구니. 1958년 정각사를 창건했고, 부산 소림사에서 10년 넘게 법화산림을 열었다. 2007년 조계종단 최초로 명사 법계를 받았다. 정각사에 주석하다 2019년 입적했다.

정목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위로와 용기, 지혜를 전하는 치유의 안내자. 마음공부 전문매체 '정목스님의 유나방송'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며, 2009년부터 정각사 주지로 있다. 저서로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등이 있다.



TEL: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